

I. 서론

할레 문제로 인하여 안디옥 교회는 물론 예루살렘 교회까지 분열과 갈등의 위기를 맞는다.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 대표로 파견하여 자문을 구했다. 예루살렘 교회는 공동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상의하여 할레가 필요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 두 교회는 분열과 갈등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하나로 화합할 수 있었을까?

II. 본론

첫째, 예루살렘 교회는 구원의 본질적인 문제에서는 양보하지 않았지만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양보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자세를 보여주었다.(19-21절)

할레와 같은 의식이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기독교의 본질이고 핵심 진리이다. 예루살렘 교회는 기독교의 구원에 있어서 핵심가치를 지키면서 이방인들에게 네 가지를 지키라고 하면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에 대한 배려와 우정과 사랑을 보여 주었다.

둘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회의결정사항을 전함에 있어서도 전략적으로 빈틈없이 깔끔하게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22절)

바나바와 바울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유다와 실라를 대표로 선임하여 함께 보냈고 사람만 보낸 것이 아니라 결정사항을 문서로 정리하여 편지를 보냈다.(23절)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작은 일이건, 큰일이건 연구하고 노력하여 빈틈없이 최선을 다 하자.

셋째, 사도의 권위로 결정되었음을 강조한다.(24-25절)

할레를 주장한 사람들은 사도들의 지지도 없이 그렇게 했지만 보내는 사람들은 우리가 보냈다는 것을 강조한다. 사도의 권위는 예수님의 권위이고 말씀의 권위이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권위와 말씀의 권위 앞에 잠잠해야 한다.

네 번째, 예루살렘 교회는 공동회의에서 기도하며 성령님의 뜻을 구했다.(28절)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 기도하며 성령의 뜻을 구했고 그렇게 결정된 것이 성령의 뜻임을 확신했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그렇게 알렸다. 우리는 사람의 뜻이 아니요 성령의 뜻을 구하며 결정해야 한다.

다섯 번째, 그들은 자존심과 체면과 고집을 버리고 결정사항에 승복하는 자세를 보여 주었다.

안디옥 교회도 그렇게 했고(30-33절)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게 했다.(22-25절)

III. 결론

우리도 분열과 갈등의 위기를 맞이할 때 이 다섯 가지를 지켜 하나 되어 땅 끝까지 전진하자.

암송

이번 주 외울 말씀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행 15:30-31)

통독

이번 주 통독 말씀

4/20(월)	4/21(화)	4/22(수)	4/23(목)	4/24(금)	4/25(토)
대상 24-27장	대상 28-대하 2장	대하 3-6장	대하 7-10장	대하 11-14장	대하 15-18장

QT

이번 주 QT 말씀

4/20(월)	4/21(화)	4/22(수)	4/23(목)	4/24(금)	4/25(토)	4/26(주일)
신 7:12-26	신 8:1-10	신 8:11-20	신 9:1-8	신 9:9-21	신 9:22-29	신 10:1-11

나눔

목장 나눔 문제

1. 오늘 설교를 통하여 새롭게 깨닫거나 은혜 받은 것이 있으면 나누어 보세요.
2. 예루살렘 교회는 할례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에서는 일치로 비본질적인 것에는 관용을 결정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서로 나누어 보세요.
3. 예루살렘 교회는 회의 결과를 안디옥 교회에 알리는데 있어서도 편지를 써서 유다와 실라를 파송하는 등 용의주도하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일이나 주님의 일을 함께 있어서 왜 철저하게 해야 하는지 서로 나누어 보세요.
4. 교회가 무슨 일을 결정할 때는 말씀과 성령의 권위아래 결정해야 하고 또 그 결정에 순복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나누어 보세요.
5.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결정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깨끗하게 승복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일인지 말해 보세요.